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호 【루계 제25880호】 주체107(2018)년 1월 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높이 힘차게 전진하자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기세충천하여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여야 할 보람찬 투쟁의 해이다.

새해 2018년을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길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양기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높이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승리는 미래를 락관하며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인민에게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우리의 필승불패의 사상정신적무기는 혁명적락관이다.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비결도,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열쇠도 전체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데 있다.

지금 2017년을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새해전투에 진입한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공장과 협동벌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과학기술로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을 떠메고나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과학연구사업과 학습을 정력적으로 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이 간직되여있다.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락관은 최강의 힘을 가진것으로 하여 더욱 억세여진 사상감정이다.

사회주의가 승리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자면 강위력한 힘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 무한대한 자강력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떨치는 사회주의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백승의 위력은 조국과 혁명앞에 류례없는 엄혹한 도전과 시련이 가로놓였던 지난해의 사변적인 나날들에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사상 최악의 난관속에서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사옹위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 단독으로 맞서싸우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들을 이룩한것은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힘, 자력자강의 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보다 더 강하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침략자들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는 주체의 핵강국의 기상앞에서 적들은 공포에 떨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 있다.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신념과 락관은 희세의 천출위인을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실뿐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강대한 사회주의조선의 약동하는 힘이며 우리 혁명의 백승의 키쥐이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를 과감히 뚫고나가는 영웅적투쟁속에서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국가는 그 어떤 천지지변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으며 날로 승승장구한다는 력사의 철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길을 밝힌 휘황한 등대였고 세련된 령도예술은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으며 강인담대한 배짱과 희생적인 헌신은 세계를 놀래우는 민족사적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올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무서울것도 두려울것도 없으며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것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철석의 신념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당에 대한 억척의 믿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제일 두려워하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허물어보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원쑤들이 최후발악할수록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해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길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자주적삶을 지키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울수 있는 유일한 진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다그쳐오는 나날에 우리 인민은 남들이 수십년이 걸려도 실현할수 없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며 질풍같이 전진해왔다. 우리는 위대한 당이 이끄는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뼈속깊이 새기고 사회주의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견결한 수호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인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무단한 자체수양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이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전당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하고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건설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편단심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지향을 가로막고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당사상전선에서 원쑤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삼고 올해의 총진군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지난해의 투쟁은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위력, 과학기술의 힘으로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비약적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번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구현하여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치밀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 혁명적인 일본새는 전투승리의 근본담보이다.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지침으로 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일신시키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혁신적인 안목과 왕성한 일욕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사상전을 드세게 벌려 온 나라에 혁명열, 투쟁열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5대표야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뼈에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며 사회주의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한 혁명의 계승자, 사회주의조선의 믿음직한 억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회주의농촌지원열의로 들끓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을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뛰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성, 중앙기관들과 각지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새해벽두부터 온 나라에 타오른 애국열의, 농촌지원열기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농사차비전투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으며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을 더해주고있다.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 새해 첫 금요로동 진행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이 5일 농사차비로 들끓는 평양시안의 농장들에서 새해 첫 금요로동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이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인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할 열의를 안고 질좋은 거름과 많은 영농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였다.

김일성광장을 출발한 정무원들은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과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으로 향하였다.

자동차들에 소농기구들과 거름을 가득 싣고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 도착한 내각사무국, 금속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륙해운성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정무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갔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나래치는 협동벌에서 정무원들은 거름부리기와 운반작업 등을 하면서 농장원들이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나가도록 힘있는 정치사업도 벌리였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건력공업성, 수매량정성, 로동성, 국가설계총국 등 여러 단위의 정무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일손을 도와 영농작업을 진행하였다.

알곡증산투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국가계획위원회, 철도성, 기계공업성,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을 비롯한 많은 단위 일군들도 새해영농전투로 들끓는 포전들에 달려나가 보람찬 금요로동의 하루를 보내였다.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평양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일념밑에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에 나가 거름확보정형을 료해하고 운반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시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가두인민반원들도 농촌지원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치였다.

한kg의 거름이라도 더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기 위해 정초부터 거름원천을 찾아 집중적인 전투를 전개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식료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공장, 평양베아링공장, 평양신발공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들이 질좋은 거름을 많이 장만하였다.

한해농사의 성과가 농사차비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한 만경대, 락랑, 모란봉, 대동강, 보통강, 평천구역의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도시거름을 마련하는데서 앞장섰다.

5일 하루동안에만도 평양시적으로 1만 5 000여의 거름을 수백대의 자동차에 실어 시안의 농장들에 집중수송하였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해나선 수도시민들의 농촌지원열풍에 의하여 시안의 협동벌마다에는 날에날마다 거름더미가 높이 쌓아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에서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에서는 도급기관들과 시, 군들에서 새해 첫 농촌지원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의 일군들은 농촌지원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는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도람사관리국,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도급기관들에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거름원천을 적극 찾아냄으로써 많은 거름을 마련하였다. 결과 원화협동농장벌에는 많은 거름이 쌓이였다.

안주시와 개천시, 정성시, 덕천시, 성천군, 북창군들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협동농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협동농장들에 질좋은 거름을 싣고나가 쌀로써 우리 당을 절사옹위할 불타는 마음안고 일손을 다그치는 농업근로자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애국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새해농사차비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사회주의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무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많은 량의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새해 첫 전투로 질좋은 도시거름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에서는 도급기관들과 시,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동의 주민들이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들에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급기관들과 신의주시안의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이바지할 자각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거름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신의주시 본부동, 민포동, 채하동, 해방동을 비롯한 수십개 동의 주민들도 많은 도시거름을 시안의 농장포전들에 실어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룡천군의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포전들에 실어내면서 농장원들을 농사차비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염주군과 정주시, 곽산군과 선천군, 동림군과 운전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주민들도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농장포전들에 실어보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농촌지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거름실어내기실적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강원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많은 거름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줄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도급기관 당조직들과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농촌지원사업에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도급기관들과 원산시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 많은 량의 거름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농장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급기관들에서는 자기들이 성의껏 마련한 많은 량의 거름을 싣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으로 달려나가 보람찬 하루를 농촌지원사업에 바치였다.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수산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의 일군들이 질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원산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많은 량의 도시거름을 시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금강, 이천, 평강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농업전선을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새해 첫날부터 많은 량의 거름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 새해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현일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 새해 첫 금요로동 진행

본사기자 한광명,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천만군민이여 앞으로!

새해전투의 포성이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다. 온 나라가 새해의 총진군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이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일 각오에 넘쳐 새해진군길에 애국충정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천만군민에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밝은 앞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안겨주었다.

신년사를 하시면서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자신께서는 마음이 든든하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낮이나 밤이나 그려보면서 인민들은 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믿음을 지니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은 백승을 떨친다.

돌이켜보면 혁명의 전도와 생명력은 령도자의 필승의 신념과 미래를 앞당겨오는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수 있다.

비범한 예지로 력사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아는 위인, 무비의 탁력과 배짱을 지닌 위대한 령장이라야 시대와 력사발전을 옳게 주도해나갈수 있으며 더우기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혁명을 론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인민으로,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사소한 담보도 모르는 백절불굴의 인민으로 강해진다는것은 조선혁명의 자랑찬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조국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그 첫 기슭에서부터 자랑찬 발전행로를 수놓아왔다.

우리 인민이 어떻게 피눈물의 언덕에서 산악같이 일떠설수 있었으며 어떻게 만난을 짓부시며 백승의 전통을 꿋꿋이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자랑떨칠수 있었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온 세계에 무진막강한 국력을 떨치는 우리 조국의 오늘에 대하여, 우리 인민의 존엄높고 긍지높은 사회주의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하신 교시가 가슴에 되새겨진다.

김정은동지는 시대의 변천과 력사의 흐름속에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를 어떻게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겠는가, 우리 인민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환히 알고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아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다.

김정은동지는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으로 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당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갈것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력사의 갈피에 깃들어있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불러온다.

그리움의 날과 달이 인민의 마음속에 들기들기 쌓이고쌓이던 몇해전 광명성절이었다.

어버이장군님의 탄생 70돐을 맞은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며 끝없이 사랑하신 인민들을 그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들은 락원의 행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혀야 한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초강도강행군을 하시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신 어버이장군님을 뜨겁게 추억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는 인민들이 그리움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인민들을 잘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이런 불같은 사랑과 숭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전두에서 이끄시며 이 땅우에 만사람을 율리는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으시였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매혹된 이 나라 천만군민은 저도 모르게 그분을 우리 원수님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인민은 떨수 없는 하나로, 영원히 가를수 없는 한식솔로 되였다.

위대한 태양의 력사는 이렇게 변함없이 조국강산에 흐르게 되였다.

순결하고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강철의 담력과 의지로 천만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락관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하신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조국의 산야에 뜨겁게 메아리친다.

《동무들! 승리를 확신합시다. 밝은 미래는 우리 인민의것입니다.》

백두의 정기로 기세차고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 선언은 력사의 어지러운 광풍을 몰아내고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부르는 승리의 기치였다.

절세위인의 불굴의 신념에 떠받들리여 우리 조국은 악동하는 짐승에 넘쳐 거창한 비약의 새시대를 맞이하였고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킨 눈부신 기적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될수 있었다.

온 나라 인민들에게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파열에 넘치신 따뜻한 음성을 인민이여 다시금 새겨보시라.

천리혜안의 예지로, 무비의 탁력과 탁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더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넘쳐난다.

최악의 난관속에서 민족사적사변들로 온 행성을 진감시킨 지난해의 경이적인 성과들은 참아만 보아도 벅차다.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9월의 열혈폭풍》에 이어 《11월대사변》과 같은 기적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특대사변들로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고 전체 인민은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그처럼 바라던 정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게 되였다.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을 보라.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새로운 전형단위들이 련이어 태여났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섰고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고 5개년전략의 화학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떠세운 기념비적창조물들,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5t급화물자동차들,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높은 알곡수확고를 기록한 다수확농장들과 작업반들, 하늘도 땅도 붉게 물들이였던 레닌에 보기드문 파수의 파도…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우리 조국의 전진을 막아보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해를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해로 빛내일수 있은 비결은 무엇이였던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도 아니였다.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승리, 그것은 다름아닌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영웅적투쟁을 벌려온 나날에 진할줄 모르는 활력을 더해주신분은 우리 원수님이시다.

지난해 1월초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데 이어 온 한해동안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고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강도와 백두산에로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오며 끊임없이 전해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은 그대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끓게 하며 이 땅이르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한 무한대의 원동력이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떨치며 보무당당히 줄달음쳐온 지난해의 전민총돌격전을 통하여 천만군민모두가 다시금 심장으로 새겨안는 철리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가 오고 더 좋은 행복, 더 큰 승리가 이룩된다는것을!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월을 앞당기며 질풍같이 내달려온 성스러운 행로도 영광넘쳤지만 희망찬 새해에 맞이할 위대한 승리는 더욱 휘황찬란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령도자와 천만군민의 심장이 하나를 이루고 정과 정이 합쳐져 대하마냥 굽이치는 이 땅에 더 큰 승리의 기적이 대통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발걸음을 따라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총폭발할 때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는 앞당겨지거니 오늘의 승리는 래일로 이어지고 새해에 우리 조국은 보다 눈부시게 빛을 뿌릴것이다.

천만군민이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본사기자 채 히 성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리.
—삼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뜻깊은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천만전사들의 기세는 충천하다.

휘황찬란한 래일을 락관하며 나아가는 진군대오에 기세찬 활력을 부어주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에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이 없이는 당이 래여날수도 존재할수도 없으며 사상사업을 내놓은 당사업과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혁명은 무엇을 원동력으로 하여 강화발전되여왔던가.

지금도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력사적연설을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리여오는것만 같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력사에도 우리 혁명과 같이 첫걸음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혁명, 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었다고 크나큰 긍지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절세위인의 귀중한 말씀을 한자한자 새겨볼수록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행로가 한눈에 밝혀온다.

우리 당은 위대한 사상으로 이 나라 인민의 정신력을 앙양시켜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를 혁명의 일대 고조기로 전환시켰고 우리 혁명은 사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다.

위대한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인민이다.

위대한 사상의 힘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진로가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갈 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더욱더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언제나 일치하며 우리 인민이 리해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못할 로선과 정책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듯이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사업에서 항상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모두를 당중앙의 사상과 숨결에 늘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당정책을 절사관철하는 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본사기자 림 정 호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자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입니다.》

경제강국건설은 헌시기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지난해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성취됨으로써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핵전쟁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는 믿음직한 억제력,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정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게 되였다. 현실은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빠른 기간에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데 맞게 경제건설에 힘을 넣어 경제강국의 고지를 점령할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확신성있게 앞당길수 있다. 올해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는것이다.

자립성과 주체성은 경제강국의 근본징표이다. 제발로 걸어나가지 못하는 경제, 남에게 의존한 경제는 실사 발전되였다 해도 일시적이며 미래가 없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세계적인 경제파동이나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박책동에도 끄떡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신년사에서 이 부문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여기에는 자립적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에 큰 힘을 넣으며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갈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력, 금속, 화학,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과 철도운수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갈수 있는 과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들이 철저히 관철될 때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와 자급자족의 경제구조가 더욱 튼튼해지고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가 열릴수 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어느 부문이나 다 대혁신을 일으켜야 하지만 특히 금속공업부문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맏아들인 금속공업이 일떠서서 기운차게 내달려야 인민경제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강철로 당중앙을 옹위하려는 불타는 일념을 지니고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만리마기수가 되여야 한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또한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근본목적도 바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자는데 있다. 이 성스러운 투쟁목표를 수행하자면 인민생활과 직결된 경제부문들이 용을 쓰고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경공업과 농업, 수산전선에서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올해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는것은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지침을 받아안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세는 대단히 높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뜻깊은 올해에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지만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이 있으며 자력갱생의 장구한 실천투쟁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인민이 있기에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에서는 기적적승리와 변혁들이 다채단으로 이룩되게 될것이다.

장 임 향

김 영 남 동 지 가

만마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네이웨도

만마련방공화국 대통령

틴 죠 각 하

나는 만마독립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1월 4일 평 양

정치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평양곡산공장 당조직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고 대중을 신년사과업관철에로 추동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신년사에 담겨진 내용들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새해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들은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나가 대중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불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일군들은 새해의 첫 전투에서 앞세를 떼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신년사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자가 되도록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원료보장을 앞세우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적극 발휘해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지난해에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많은 생산성과들을 탈성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새해에 공장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켜나가고있다.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고조시켜나가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올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새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아로새겨질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뼈에 새기자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형제산구역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열풍으로 전당이 끓고있다.

신년사의 사상과 진수,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야 올해 단위앞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당일군들이기에 새해 첫 전투로 신년사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하고있는것이다. 주옥같은 글발을 자자구구 새겨보며 올해전투목표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찾는 당일군들속에는 형제산구역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교양의 목적은 단순히 정치지식을 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새해진군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신년사의 진수와 내용들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그 과정에 벌써 많은 일군들이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을 환히 꿰들고 그에 기초하여 올해의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좋은 일거리들을 찾아냈다.

올해신년사학습에서 구역당위원회가 중시하고있는것은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이다.

항일전의 나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제의 백만대군이 달려드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어유있게 군정학습을 조직진행하신 백두산청년장군의 강인담대한 배짱, 학습을 최후승리를 위한 중요한 전투로 보시고 천고의 밀림속에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여 지휘관,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예지를 심장깊이 새기며 구역당책임일군이 결심한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구현하는것이였다.

항일유격대의 군정학습기풍을 따라배우자. 투사들의 기풍을 본받아 학습열풍이 싹 차넘치게 하자.

구역당위원회는 이런 의도밑에 구역안에 항일유격대식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론을 진지하게 탐구하였다.

우선 구역당일군들부터 신년사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전바람을 일으켰다.

그 하나가 문답식학습방법을 적극 구현하는것이였다.

학습방법에서 암기식이 아니라 토론과 론쟁을 심화시켜 그 진수를 파악하게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러자면 우선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내용을 환히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구역당책임일군부터 학습전투를 벌리며 내용을 깊이 파악해나갔다.

새해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그는 그 사상과 내용들을 세겨보았다. 그리고 신년사와 결부하여 능력이 큰 수원지건설을 비롯하여 올해전투목표들도 새롭게 확정하였다. 올해에 구역에서 진행하여야 할 사업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신년사학습을 진행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이런 충분한 준비밑에 구역안의 일군들의 모임에서 신년사개괄강의도 진행하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의 학습열풍을 본받아 구역안의 일군들도 신년사의 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한 학습전투를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역할이 높아졌다. 신년사의 전반체계와 내용을 적은 직관판들을 사무실들과 구내곳곳에 게시하여 앉으나서나 학습하는 기풍이 당일군들속에 차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학습을 충분히 진행한 후 부서별, 조직별로 문답의 방법으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학습토론은 원리적으로 학습한 내용에 기초하여 일거리를 찾는 방법으로, 찾은 일거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집행하겠는가 하는 방도를 찾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렇듯 항일유격대식으로 신년사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역당일군들은 그 내용과 진수를 파악하고 올해의 전투목표와 수행방도들도 찾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학습에서의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구역적으로 신년사학습에서 전형단위로 선정된 단위는 구역인민위원회이다. 지난 시기 시적으로 진행된 문답식학습경연에서 여러차례 좋은 평가를 받은 인민위원회를 전형단위로 정함으로써 앞선 단위는 계속 앞서나가게 하고 뒤떨어진 단위는 맹렬한 추적전을 벌려 온 구역인에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자는것이였다. 이런 방법으로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 혁명적학습열풍을 더욱 고조시키게 하고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아래단위에 내려가 신년사의 사상과 진수를 새겨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구역당위원회책임일군은 새해농사차비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신미남새전문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에 나가 수십명의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들을 해설해주어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켰다. 또한 구역급일군들이 농장들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거름생산전투를 진행하면서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알려주어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킨것을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을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 전투목표수행을 위한 작전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는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참으로 혁신적인것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신년사학습조직과 지도가 주목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선 신년사학습체계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대중집합장소들에 게시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신년사의 기본내용을 알기 쉽게 체계화한 직관물을 만들어 직장 문화선전실과 사무실들, 사업소들의 문화회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학습마당으로 전환시키도록 한것이다. 이렇게 되니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고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모이는 기회에도 늘 신년사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인식할수 있게 되어 좋았다.

1월 4일 하루동안에 련합기업소적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340여개의 신년사학습제기도가 게시된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올해의 신년사학습열의가 얼마나 드높은가를 짐작할수 있다.

다음으로 토론과 론쟁을 통한 학습을 더욱 참신하고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와 요인에 대한 학습토론을 놓고보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 부문에 대한 토론에서 일군들은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 위대성과 결부하여 폭넓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참신하게 진행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더불었다.

현실에 보다 접근하여 구체적인 방도를 찾는 방향에서 토론과 론쟁을 심화시킨것도 올해 학습에서 달라진 점이다.

행정일군들의 학습을 지도하던 당위원회일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는데 그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해보자고 하면서 학습토론을 실천과 밀착시켰다.

얼떨 토론과 론쟁끝에 배수리직장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들, 물고기철에 따르는 생산장성을 위해 기업소가 내부예비를 찾아 자체로 보장해야 할 자재 등 수산물생산을 최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찾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신년사학습을 심화시켰다.

새해 첫 학습강사의 날에 솔연한 당책임일군은 강의에 앞서 학습강사들의 신년사인식정형부터 료해하였다.

신년사의 기본정신과 체계를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고있는 학습강사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부문 과업관철을 위한 대책적문제와 결부시켜 폭넓게 인식하고있는 학습강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실속있는 학습태도를 긍정해주고나서 당책임일군은 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당초급선전일군들인 학습강사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올해의 신년사학습이 혁명실천에 이바지할수 있는 산 학습으로 되도록 책임성과 역할을 다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반별로, 당세포별로 신년사학습열풍이 더욱 고조되고 올해전투성과를 담보하는 혁신적인 대책들이 취해지고있다.

형식과 방법이 새로와진 이곳 당위원회의 신년사학습열풍이 안아올 높은 실효, 올해의 투쟁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김향란

경연조직과 지도에서 중시한 문제

길주군제1인민병원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길주군 제1인민병원의 종업원들이 그 사상과 진수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문답식학습경연의 방법으로 학습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문답식학습을 실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그에 대한 총화도 제때에 하여 이 학습방법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경연조직요강을 현실성있게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경연이 실속있게 진행되게 하자면 조직요강에 경연참가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몇몇 일군들이 모여앉아 요강을 만들다나니 경연이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실례로 경연이 선수본위로 진행된다는가 경연에서 기계적으로 외우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다. 이것은 경연에 대한 대중의 열의를 떨어뜨리고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발로시키는 요소로 되였다.

초급당위원장은 초급당위원들과 당세포위원장들은 물론 평범한 종업원들과도 만나 요강작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지난 시기에 나타났던 편향들을 극복하고 문답식학습경연을 참신하게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대책적문제들이 제기되게 되였다. 선수본위로 진행되던 경향과 암기식방법을 없애고 내용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연이 진행될수 있게 되였다.

경연의 목적과 날자, 학습문제와 평가기준, 참가대상과 단위, 경연의 형식과 순차, 경연의 총화와 평가에 이르는 요강의 모든 조항들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됨으로써 그들이 경연에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성을 가지고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경연참가자들이 신년사학습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경연참가자들에게 학습과제를 미리 주고 자체학습을 충분히 시키는것과 함께 해설과 토론을 조직해주어 누구나 제시된 문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학습강사들에게 과업을 주어 단위별로 실정에 맞게 신년사해설사업을 진행하도록 한것이 좋았다. 남보다 먼저 신년사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한 강사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지난해성과부분에서는 류례없이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무력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내용들을, 올해의 과업부분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현실과 결부하여 깊이있게 해설해주었다. 품을 들여 진행한 해설사업은 경연참가자들의 학습열의를 더욱 높여주고 신년사학습을 폭넓고 심도있게 하도록 떠밀어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연조직과 지도에서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다음으로 신년사학습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한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출연자들이 기본문제에 대한 답변만 잘하면 학습을 잘한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다나니 학습을 본신혁명과업수행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초급당위원회는 출연자들이 학습을 자기 단위의 실정과 지난 기간의 사업정형을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경연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학습을 통하여 지난해의 사업성과와 결함을 옳게 분석하고 올해의 총공세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상정신적준비를 원만히 갖추어나가도록 하였다. 학습과정에 경연참가자들은 올해 자기 단위앞에 나선 전투목표를 심장에 쪼아박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할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문답식학습열풍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의 진군길을 다그치는 병원 의료일군들의 발걸음에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학습과정이 곧 방도를 찾는 과정이 되게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신년사학습조직과 지도를 참신하게 해나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학습과정이 그대로 올해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찾는 과정으로 되게 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이 혁명실천과 결부되여야 학습도 실속있게 되고 혁명과업수행도 성과적으로 보장됩니다.》

새해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흥분속에 받아안은 초급당일군들은 지체없이 학습전투계획을 세웠다.

들끓는 전투현장을 학습전투장소로 정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초급당일군들이 포전에서 농장원들에게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있게 해설해주기로 하였다. 특별히 강조된것은 일군들이 신년사의 내용을 되새겨주는데 그치지 말고 농장원들과 분답의 방법으로 담화를 하면서 그들자신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들을 스스로 찾게 하는것이였다.

지난 4일 초급당일군들은 담당한 작업반들에 일시에 내려갔다.

초급당위원장은 제2작업반 포전으로 달려나갔다.

곳곳에 세워진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구호판과 표어들이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열의를 한껏 북돋아주고있었다.

작업반원들에게 올해신년사의 체계와 내용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준 초급당위원장은 목문수동무에게 농업부문앞에 제시된 과업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목동무는 일사천리로 대답하고나서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뜨락또르운전수로서의 책임감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된다고, 올해에는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겠다고.

초급당위원장은 못내 흐뭇하였다. 농장원들 누구나 목동무처럼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기게 하자는것이 초급당위원회의 의도였던것이다.

초급당위원장이 이번에는 천백배로 가다듬으며 계속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였다.

강원도와 자강도 등 3개 대상의 발전소건설 동시에 힘있게 추진!

해마다 맡겨진 건설계획 빛나게 초과완수!

바로 이것이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결사관철의 승전보성만을 울려온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정과 헌신의 결정체이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이 건설장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건설자재증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자강도에 일떠서는 수력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김명하, 안성남, 함승모, 락창근동무를 비롯한 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수문제작을 지상화대식으로 다그침으로써 종전방식으로는 개당 40일이상 걸려야 한다던 수문을 단 15일동안에 하나씩 완성하고 짧은 기간에 10여개의 대형수문들을 전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조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포지구에 달려나온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력발전소건설의 기간부대, 근위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며 방대한 량의 가배수로공사를 훌륭히 완공하였다. 이들은 언제 기초굴착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언제성토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발전소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밑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자강력은 곧 과학기술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보검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한 신수혁, 김상현동무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량의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게 하였다.

정녕 당의 구상과 의도를 몸이 천조각, 만조각이 난대도 무조건 결사관철해나가는 이곳 건설들의 심장마다에서는 발전소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어머니당에 기어이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리려는 뜨겁고도 진실한 애국충정이 활화산마냥 강렬하게 분출하고있다.

이 나날 련합기업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은정마을을 종업원들이 대대손손 만복을 누려갈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책임일군들은 건설전망계획을 통이 크게 세운데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세멘트와 강재, 골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건설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강동군 삼등지구를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특히 직장장 김세종동무를 비롯한 건설직장의 일군들과 청년건설자들이 더 좋은 래일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다 바치며 자기 고장과 일터를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로, 발전소건설의 튼튼한 모체기지로 꾸려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와 영생탑을 중심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혁명사적교양실 등을 정중히 꾸리고 강동군 은정고급중학교와 유치원, 문화회관과 수력원, 살림집들과 각종 후방기지, 상업봉사망을 비롯한 100여개의 대상들을 새롭게 일떠세우거나 훌륭히 개건보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리명환, 장승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 자강도에 건설하는 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하며 2개 대상의 발전소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제대군인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새로 일떠세울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을 뼈에 새기고 결사관철의 투쟁전통을 빛내이며 만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기간부대, 근위부대의 위용을 떨쳐갈 일념안고 발전소완공의 결승선을 향해 총돌격하고있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일터마다에서는 날에 날마다 자랑찬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고있다.
—석탄공업성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기간부대, 근위부대의 위용 떨치리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올해 1월은 남달리 사연깊은 달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시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품속에서 수력발전소건설의 기간부대, 근위부대로 성장해온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결사관철의 투쟁전통을 꿋꿋이 이어 계속혁신의 불길드높이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크나큰 그 은정 위훈의 나래되여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미더운 로동계급은 수십년세월 심심산골의 강줄기들을 길들이며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과 헌신의 구슬땀을 묵묵히 바쳐왔다. 이 나날 건설장들을 따라 매번 보금자리를 옮기면서도 모두가 그 무슨 생활상애로나 불편보다도 발전소건설을 먼저 생각하며 대자연개조의 메나면 길을 대를 이어 꿋꿋이 걸어왔다.

하지만 누구나 어쩔수 없는 일로만 여겨온 이들의 마음속고충을 남먼저 헤아려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97(2008)년 1월 6일, 대소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룡소례성강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례성강청년1호발전소의 조기조업을 앞당겨 보장한 건설자들의 투쟁위훈을 치하해주시며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는 지난 시기 장자강발전소, 남강발전소, 대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공로있는 건설부대라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이날 련합기업소건설자들의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종업원들이 살림집문제때문에 애로를 느끼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제는 수력발전소건설자들의 지난날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삶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일찌기 전기도 귀중하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것은 사람이라시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매 가정에 텔레비죤과 선풍기, 무연세간까지 빠짐없이 갖추어주도록 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그해 건설자들이 강동군에 멋지게 꾸려진 은정마을의 800여세대 살림집들에 한날한시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선물으로 지니시고 우리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은 곧 이곳 건설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더 높은 발전소건설성과로 우리 당을 억세게 받들자.

전투장마다에 보답의 땡세가 대하마냥 세차게 굽이치는 속에 모든 건설자들이 발전소완공의 뻥마루를 향해 번개처 내달리였다.

이들은 불비쏟아지던 전화의 나날 직사포를 고지우로 끌어올리던 인민군용사들처럼 통전기재들이 지쳐내리는 위기일발의 순간마다 한몸이 그대로 버팀목이 되고 바쭐이 되여 1000여리의 구간에서 수백에 달하는 설비들을 안전하게 날라오기 위한 수송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카설직장의 최영복, 김병호동무들과 기능공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대담한 방법으로 기중기의 능력을 한계단 끌어올리고 강한 바람속에서 용접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해내였으며 선별직장과 설비조립사업소의 로동자들도 새로운 공법들을 련이어 받아들여 종전보다 조립전투에서 2배의 속도를 창조하였다.

특히 리기천동무를 비롯한 타입직장의 전투원들이 언제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혼합물운반과 처리시간을 줄이고 양생대책을 면밀히 세워 콩크리트치기에서 례년에 보기 드문 최고기록을 창조하였다.

시련과 난관은 많았지만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공사실적으로 받들어나가려는 불타는 열의를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는 건설자들의 앞길을 그 무엇도 가로막을수 없었다.

박정남, 손원식, 한병진동무를 비롯한 굴착직장과 혼합직장의 전투원들, 수송직장과 시추직장, 중기계직장과 운수직장, 공무동력직장의 로동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를 과감히 뚫고나가며 일터마다에서 공격전의 도수를 높이였다.

하여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새집들이를 한 후 자기들의 일터를 또다시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례성강청년1호발전소조업의 자랑찬 승전보를 삼가 올리였다.

자신들과 가족들에게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정에 발전소건설성과로 보답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충정에는 한계가 없었으니 이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그 다음해에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을 완공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희천2호발전소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어려운 가배수로공사와 우안언제기초굴착 및 콩크리트치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결사관철의 전통은 굳건하다

수력발전소건설의 기간부대, 근위부대의 값높은 영예와 결사관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는 이곳 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광명성절을 맞으며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불타는 충정의 맹세를 담아 삼가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믿음과 사랑을 담아 불멸의 친필을 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은정마을을 더 잘 꾸리도록 세멘트와 강재보장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새로 배치된 로동자들의 살림집건설과 생활안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기간부대, 근위부대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여갈 신념의 맹세를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철산봉을 뒤흔든 45만산대발파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고 새해진군길에 과감히 떨쳐나선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난 5일 4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을 활성화하려면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철정광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말부터 45만산대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투현장에 수십개의 이동식현장속보판을 설치하고 회전식착정기와 굴착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에 힘있고 호소성이 강한 표어들을 게시하였다. 또한 방송선전차활동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서들에서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으로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대발파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었다.

로천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로동계급의 기상과 탄력을 다시한번 보여줄 불타는 일념안고 45만산대발파준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분광산에서는 선진발파방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정신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며칠은 걸려야 하는 회전식착정기보수를 10시간만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10여대의 대형설비들의 만가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갔다.

공무분공장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10여종에 1 700여점에 달하는 부속품들을 제때에 가공함으로써 채굴설비들의 만가동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원료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대발파에 필요한 원료를 제기일내에 생산보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뜻깊은 새해의 첫 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려놨다.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들은 로천분광산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철정광증산으로 빛내이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철산봉의 전투현장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협의회들을 어떠차례 진행하면서 4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발파지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발파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였다.

련관단위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45만산대발파준비를 빠른 시일안에 빈틈없이 갖추었다.

지난 5일 철산봉에서는 드디여 45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철산봉에 높이 울린 45만산대발파의 장엄한 포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공화국창건일혼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다시한번 떨치려는 무산로동계급의 불타는 열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은남

백두대지에 울려가는 전력증산의 동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년초부터 기세를 올리면서 전력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에서는 새해에 들어와 매일 높이 세운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량강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당조직에서는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지난해 전력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살려 새해에도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전력생산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백두산지구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의 기본열쇠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마련된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이들은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번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려고 분발해나서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고 물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발전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2호발전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발전기, 수차들을 가동시키는데서 있을수 있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여 각종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설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술학습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언제구조물, 천정기중기, 뽐프를 비롯한 발전설비들에 대한 순회감시와 불량개소들에 대한 보수를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정상화하여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성과를 올리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속에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전력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린데 맞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올해에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전력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전력생산과 송전, 발전소관리운영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드세찬 총공격전으로 전력증산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총공세의 불바람 세차게 인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이 제시한 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그 어느 일터에서나 혁신의 동음이 우렁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틀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만짐을 지고 말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이들은 앙양된 대중의 투쟁기세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특히 련관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어렵게만 여기던 여러종의 프레스장비품소재를 마련하였다.

장비직장의 종업원들이 신심드높이 떨쳐나섰다. 직장에서는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운전실장비제작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금형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기관본체금형장비를 비롯한 주물장비생산에 말라붙어 기세를 부쩍 올리고있다.

정밀가공직장의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가슴끓이며 CNC설비를 리용하여 기관본체금형장비에 대한 정밀가공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부분품조립과 부속품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타오르고있다.

자주호제관직장과 승리제관직장 기술자, 로동자들은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차틀과 적재함조립, 연유탕크 등 부분품조립을 다그쳐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대형차1직장에서는 탄성축지지물조립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종전보다 조립시간을 훨씬 단축하고있다. 대형차2직장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예비다이야올림기구조립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형차제관직장 로동자들도 앞을 다투어 카며 운전실조립에서 일자리를 죽죽 내고있다. 케블선직장 로동자들은 각종 도관련결을 위한 접관과 련결관 등의 생산에서 남다른 실적을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과업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청정기분공장과 랭각기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은활유청정기와 공기청정기, 물랭각기와 공기랭각기 등의 생산에서 큰 보폭을 내짚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놓았다. 그리고 철산봉의 전투현장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협의회들을 어떠차례 진행하면서 4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발파지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발파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였다.

련관단위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45만산대발파준비를 빠른 시일안에 빈틈없이 갖추었다.

지난 5일 철산봉에서는 드디여 45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철산봉에 높이 울린 45만산대발파의 장엄한 포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공화국창건일혼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다시한번 떨치려는 무산로동계급의 불타는 열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은남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들끓는 막장

강서탄광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은을 넓수 있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른아침이였다.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어둠속에서 탄광마을 집집의 문이 여닫기는 소리에 이어 서로 찾고부르는 녀인들의 명랑하고 활기에 찬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아침일찍 탄전의 녀인들이 찾아가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탄광의 갱입구들마다에는 불빛이 환하고 북소리, 나팔소리 드높은데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석탄생산에서 성과를 거둔 탄부들을 축하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손에 든 탄전의 녀성들은 갱입구를 주시하며 간밤 수고한 혁신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드디여 요란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로력혁신자들이 갱밖으로 나섰다. 그뒤로 막장에서 올라온것은 뜻밖에도 탄광의 당, 행정 및 근로단체일군들이였다.

녀인들은 알수 없었다.

뜻깊은 새해의 첫아침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탄광의 일군들이 즉시에 혁명적인 총공세로 석탄생산을 높일 비상대책을 세우고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갱막장들에 일제히 진출하였다는것을.

일군들이 청년갱, 전진갱, 서부갱 등 막장마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담겨진 기본사상을 탄부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고 그들과 어깨걸고 한교대작업량을 본때있게 해제낀줄을 사람들은 그때에야 알게 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인수원들,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이 수백리 멀리 떨어진 갱목생산지에서 벌목공들과 함께 생눈길을 헤치며 마련한 많은 량의 동발목을 싣고 그길로 탄광을 향해 달려오고있는줄은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청년갱의 젊은 탄부들도, 서부갱과 전진갱의 오랜 탄부들도, 탄광일군들로부터 녀맹원들까지 석탄증산이라는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사람같이 분발하였고 힘차게 내달렸다.

이미 2중전력공급체계가 완비된 청년갱과 1갱, 6갱에서 새해의 승전보성이 땐 선참으로 울려퍼지였다.

뒤이어 전진갱, 혁신갱, 2갱 등 여러 갱들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타올랐다.

참으로 온 탄광에 집단적혁신의 불길, 혁명적인 총공세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였다.

막장에까지 깊이 들어가 걸린 문제를 속속들이 풀어주고 탄부들의 귀속말도 들으면서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준 일군들의 침입식정치사업의 위력은 대단했다. 역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였던것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 키돋움하며 솟구치는 석탄산들을 보고있다.

지심깊이에서 울려나오는 발파소리를 땅우에서는 들을수 없지만 우리의 귀전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기고있는 이곳 탄부들의 힘찬 발걸음소리, 새로운 승리를 향해 총돌진하는 돌격의 함성이 생생히 들리고있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석탄산을 높이 쌓자.

특파기자 주 창 선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덕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당의 부름에 자랑찬 증송성과로

함흥철도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철도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철도국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가 앞장서나가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국안의 모든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면서 무사고증송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침입식사상공세를 들이대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철도국의 일군들은 중요물동수송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고원전기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기관차의 신동률이자 수송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기관차운영과 수리에 힘을 넣어 신동기대수를 늘이고있다.

철도국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날마다 수송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국의 일군들은 집중수송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화차편성과 맞물림조직사업 등을 짜고들어 계획보다 많은 짐을 더 실어나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국아래 중요물동수송을 맡은 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렬차들의 정시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또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면서 증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수송전사들은 역들사이 련계를 강화하여 화차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임으로써 국적인 계획수행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여러 철길소대들에서도 철길보수에 필요한 기공구들과 철길고착품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겨울철조건에서도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두줄기 궤도우에 총정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열의에 넘쳐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당의 부름에 자랑찬 증송성과로

함흥철도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철도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철도국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가 앞장서나가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국안의 모든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면서 무사고증송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침입식사상공세를 들이대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철도국의 일군들은 중요물동수송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고원전기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기관차의 신동률이자 수송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기관차운영과 수리에 힘을 넣어 신동기대수를 늘이고있다.

철도국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날마다 수송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국의 일군들은 집중수송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화차편성과 맞물림조직사업 등을 짜고들어 계획보다 많은 짐을 더 실어나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국아래 중요물동수송을 맡은 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렬차들의 정시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또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면서 증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수송전사들은 역들사이 련계를 강화하여 화차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임으로써 국적인 계획수행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여러 철길소대들에서도 철길보수에 필요한 기공구들과 철길고착품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겨울철조건에서도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두줄기 궤도우에 총정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열의에 넘쳐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자자구구 새기며

증산군백송원료동원사업소 당조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신년사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문답식학습경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키고있으며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 신년사의 내용을 해설한 직관물들을 게시해놓고 그 사상과 진수를 심장깊이 새기도록 하고있다.

특히 당초급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깊이있게 학습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해설해주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거름생산전투로 들끓고있는 현장에 내려간 당초급일군들은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 공화국창건일혼돐을 맞는 올해를 높은 사업실적으로 빛내이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불타는 열의에 넘쳐 그날 맡겨진 거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로농통신원 조정호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간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이 지난 5일 15만산대발파와 3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을 위한 1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와 련결제방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열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면서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드세게 벌려나갔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수송능력을 종전보다 더 높인데 맞게 15만산대발파와 3만산발파를 진행하기 위한 통이 큰 전투를 벌리였다.

안산지구의 15만산대발파를 맡은 리수복청년돌격대의 전투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수심m의 도갱을 뚫고 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1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3만산발파를 맡은 전투원들도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도갱을 뚫고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련결제방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대발파를 끝낸 후 여러곳에서 동시에 1차물막이공사와 련결제방공사가 벌어지는데 맞게 건설력량과 수단들에 대한 집중과 분산, 재배치 등 전투조직을 능동적으로 짜고들고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매일 맡은 공사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일군들은 정치사업부대를 들끓는 전투장으로 옮기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기본정신을 되새겨주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면서 간석지건설자들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접도지구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접도를 타고앉은 장송, 다사,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다사기계화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은 모든 물자를 때로 수송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련결제방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접도방향의 1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를 맡은 다사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신의주간석지부재분공장, 리수복청년돌격대, 다사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은 1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세드높이 매일 맡은 공사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큰대륙도방향의 련결제방공사를 맡은 석화, 곽산,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도 증산돌격전을 벌리면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지만 이곳 간석지건설자들은 백절불굴의 용격정신으로 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다사기계화분사업소,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은 간석지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물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전투장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강용한 기상을 안고 올해의 총공격전에 걸기해나선 이곳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홍건도전역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으며 청춘제방들이 남바다를 가로막으며 장쾌하게 뻗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꾸바대사관 성원들 평양산원 참관

꾸바혁명승리 59돐에 즈음하여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5일 평양산원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녀성들과 후대들을 위한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산원의 여러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헤루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씨 쏘뚤롱고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평양산원은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를 보여주는 곳이다고 썼다.

손님들은 산원에 기념품을 남기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7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 탁구 남, 녀 단식, 혼성복식경기들이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새해의 혁명적인 총공세에 떨쳐나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문에서 힘을 넣게 될 문제들에 대하여 알고 싶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투쟁에서 과학기술부문의 임무가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적이고 무겁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게 되는가.

부위원장 김정수: 올해의 혁명적인 총공세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발휘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대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할것을 목표로 하여 중요대상과제들을 편성하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을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게 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산소에 의한 미분탄착화와 연소안정화기술을 완성하고 여러 화력발전소보이라들에 화대도입하며 지역별로 태양빛과 생물질에네르기를 리용한 분산형전력생산체계를 연구도입하고 에네르기절약형기술을 도입하는것을 비롯한 여러건의 주요대상과제들에 선차적인 힘을 넣게 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고 새로운 남비정련기술을 도입하여 강재의 질을 높이며 우리 나라 함금철소에 의한 함금강생산공정을 완비하고 내화재료를 국산화하는 등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기어이 완성하는데 이바지하려고 한다.

화학공업과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이 많다. 특히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기술준비를 끝내고 탄소하나화학공업에 필요한 촉매들을 개발도입하며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많은 로력과 자금,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석탄가스화공정화학법, 희망초를 리용한 탄산소다생산공정의 개건완비 등 국가적의의가 큰 문제들이 나서고있다.

국장 승경철: 올해에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도 계속 힘을 집중하게 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유연창대직기의 CNC화, 합성가죽의 질개선, 섬유생산의 주체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신발생산에 필요한 고무보장을 위한 재생기술을 확립하는 등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생산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려고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다수확벼 1대잡종을 비롯한 여러가지 다수확우량품종들을 육성하고 그 재배기술을 확립하며 가까운 앞날에 벼와 강냉이 등 다수확알곡품종을 넓은 면적에 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간석지논에서 높은 소출을 낼수 있는 새로운 염기견딜성벼품종들을 육성하고 다수확벼제배방법인 벼강화제배방법을 보다 완성하며 여러가지 선진영농방법들을 도입하는데 모를 박고 농업연구원을 비롯한 강력한 농업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게 된다.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 등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경제부문들의 발전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미 일정하게 이룩된 조건에서 행정조직사업을 잘 짜고 들어 더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기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국장 승경철: 올해에 혁신기초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의 만만한 과학적야심이 비낀 중요과제들에도 큰 힘을 넣게 된다.

정보기술부문에서는 병렬처리기술과 구름계산기술을 결합하여 우리 식의 계산봉사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대규모과학기술계산을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며 실내음향측정장치 및 프로그람을 개발하는 등 여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나노기술부문에서는 탄소나노섬유를 개발하고 생물공학부문에서는 첨단기술인 게놈편집기술로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새로운 논벼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장 차선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기술보급사업은 결코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과학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당의 사상관점과,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과 립장에서 온 나라에 과학기술보급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겠다.

국장 조세권: 올해에 국가적의의가 크고 현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중요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생산을 장성시키는데 이바지해나가겠다.

기자: 올해에 과학기술부문앞에 나서는 목표가 방대한것만큼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 과학기술행정기관으로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부위원장 김정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은 오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검사관철하고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열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겠다.

그리하여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우리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의의깊은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겠다.

본사기자 려명희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

◇《3.18혁명》, 《7.4혁명》, 7.28의 력사적승리, 《11월대사변》…

얼마나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2017년의 특대사변들인가.

우리 인민은 지난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

주체조선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를 희망의 새해에 새로운 승리로 이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신심과 기상은 지금 하늘에 닿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국가과학원 국장 임영식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한다는 신년사의 구절을 새길수록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오늘의 과학기술시대에는 과학기술력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과학전선을 지켜선 일군의 사명과 본분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다. 새로운 승리가 우리를 부르고있다. 새해의 혁명적인 총공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가 우리에게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의 력사적승리, 이것은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이며 우리 인민이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굳건한 밑천이다. 이 승리는 령도자는 과학자들을 믿고 과학자들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일심단결의 사상, 혼연일체의 넋이 안아온것이다. 죽어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자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며 국방과학전사들이 벌려온 피어린 결사전의 고귀한 결실이다. 단순한 전본모방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생눈길에서 국방과학전사들과 군수로동계급이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에 앞서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 기성의 몇년을 단 몇달로 주름잡으며 안아온 100% 우리의 두뇌, 우리의 지혜의 산물이다.

주체탄, 주체무기들을 우주만리에 떠올리고 주체조선의 위대한 힘을 탄생시킨 대승리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총공세의 사상정신적원천이 어디에 있고 우리 식 창조본때, 우리 식 창조방식이 어떤것인가를 가르쳐주고있다.

새로운 발전과 승리를 위한 도약대가 든든하기에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시련의 고비도, 점령 못할 과학의 요새도 없다.

◇국방과학전사들처럼, 군수로동계급처럼! 새해의 전인민적인 총공세가 우리모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잘살고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최후발악적인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면 누구나 어디서나 이들처럼 살며 투쟁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실현에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쏟그리 바친 국방과학전사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피타게 배우고 다진 지식과 기능으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착상과 설계를 단번성공의 실체로 만들어내놓은 군수로동계급처럼 어디서나 먼저 찾는 과학기술인재가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사랑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고 더 큰 승리를 안아오는 참된 애국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식 체신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가슴가슴은 드높은 애국적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는데서 나라의 신경이며 혈맥인 체신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맞게 연구소당조직에서는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공세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신년사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해설하는 직관물들을 모든 사무실과 연구실, 작업반 교양장소들에 제시하여놓도록 하였을뿐아니라 그에 대한 학습을 단위실정과 결부하여 실효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체신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보다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새해진군의 첫걸음부터 보폭을 크게 내짚고있다.

민정기소장과 최성룡부소장을 비롯한 연구소의 일군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와 날로 늘어나는 통신수요에 맞게 체신현대화를 위한 전투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매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나라의 체신부문 전반에 필요한 설비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체신의 주체화를 실현하여온 간고하고도 보람찬 개발창조의 나날에 귀중한 경험도 얻고 창조적능력도 부단히 높여온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이기에 높이 세운 목표앞에서 자그마한 주저나 동요도 몰랐다.

조명철동무를 비롯한 통신장치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적대세력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분쇄하는 거품으로 만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첨단수준의 대용량IP전화교환설비를 연구개발한 성과를 도, 시, 군들에 광범히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지난해에 통신망의 완전IP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고속수자식전송설비의 시제품을 내놓은 정순도동무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집단에서도 그 능력을 철선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진입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다른 연구집단들에서도 통신망의 광대역화와 교화질중계체계의 완비 등을 위한 개발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 기세, 이 열정을 안고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를 체신현대화의 보다 큰 승리로 빛내여나갈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철웅

신심드높이 새 승리를 향하여

크나큰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옵는 순간 나는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만나뵙던 영광의 그 순간이 다시 온것만 같아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우리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를 잘 구축해놓았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은 지금 우리 연구소의 전체 과학자들을 분발시키고있다.

올해에 우리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대규모과학기술계산을 신속정확히,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고성능병렬콤퓨터의 가동환경봉사체계를 새롭게 수립하겠다.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형조종체계를 연구개발하는 등 여러건의 무게있는 연구성과를 낳내놓겠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최성

우리 식의 첨단농약들을 더 많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농업전선에서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최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앙양을 일으키자면 우리 농업과학자들이 기수, 전초병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올해에도 과학연구사업에 큰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 시기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공업적생산기술을 확립한 현부제형종자피복제와 같은 기술제품들이 올해의 농업생산에서도 큰 몫을 낼수 있게 생산기술지도를 보다 강화해나가겠다.

그리고 농촌경리의 화학화실천에서 의의가 크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새로운 첨단농약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 농업생산에 이바지하겠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 소장 김치영

청춘의 슬기와 기백으로 첨단을

우리 연구집단은 대부분이 30대의 청년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청춘연구집단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삼천메기공장의 로동계급과 합심하여 자동먹이공급기를 제작도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동먹이공급기의 동작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잘 만들었다고,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우리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지금 뜻깊은 올해의 보람찬 탐구의 길에서도 청춘의 슬기와 기백을 남김없이 떨쳐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지난해에 새로 건설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치약생산공정의 정상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제낀 그 기세로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겠다. 당면하여 치솔정렬공급로보트, 치솔정렬기를 성과적으로 제작도입하겠다.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실장 을지기호

지극한 정성이로 피운 꽃

김형직인민병원과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

얼마전 우리는 하나의 감동깊은 사실을 알게 되였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사경에 처했던 김형직군의 5살난 박예령어린이가 그곳 인민병원과 옥류아동병원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정성속에 다시 태지를 활보하게 된 이야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의료일군들이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지난해 3월 어느날이였다.

옥류아동병원의 한 수술장앞은 아침부터 많은 의료일군들로 붐비고있었다. 예령이에 대한 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된다는것을 알고 모여온 일반외과의 의사, 간호원들이였다.

《담당의사인 제가 응당 먼저…》

《선생이야 치료사업을 계속해야지. … 우리가 있지 않소.》

김성남의사와 윤광철의사가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제 피부도 떼어주십시오.》

《예령이야 우리모두의 환자가 아닙니까.》…

이 광경을 눈물속에 목격하는 예령이의 어머니인 전명옥녀성은 목이 팍 메여올라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거듭 외우는 그의 머리속에 또 하나의 가슴뜨거운 화폭이 생생히 떠올랐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딸애를 안고 그가 처음으로 달려간 곳은 김형직인민병원이였다. 전신 60%에 3도화상, 진단은 예령이에게 있어서 너무도 치명적인것이였다. 이 사실을 안 전명옥녀성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얼마후 의식을 차렸을 때 그의 눈에 비껴든것은 참으로 놀라운 현실이였다. 한명의 어린 환자를 위해 온 병원이 떨쳐나선 가슴뜨거운 화폭, 자기들의 피도 서슴없이 바치며 소생전투를 벌려가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이였다. 그때 그는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에서 사는가를 폐부로 절감했었다.

그가 이런 생각에서 깨여났을 때에는 이미 수술이 시작된 뒤였다. 앞을 다투며 수술장으로 들어서는 의료일군들의 모습…

전명옥녀성은 눈물이 앞을 가리워 그들의 얼굴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똑똑히 알고있었다. 이것이 바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불기처럼 흐르는 우리 제도의 모습이며 환자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는 사회주의보건일군들의 참모습이라는것을.

언제나 치료전투의 앞장에 서있는 옥류아동병원의 일군들, 예령이를 안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던 황철호과장이며 눈에 피발이 서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린 김성남의사, 접쌓이는 피로로 하여 코피를 쏟으면서도 언제 한번 환자의 곁을 떠난적 없는 간호원들…

이러한 정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김성남의사가 전명옥녀성에게 하였다는 말이 대답해주고있다.

《또 한명의 어린이를 소생시켰다는 기쁜 소식을 당에 보고드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온 의료집단이 그런 일념을 안고 치료사업을 해온답니다.》

예령이가 완쾌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을 때 전명옥녀성은 자신이 체험한 그 모든것을 한자한자 편지에 담았다. 사경에 처한 그 순간부터 부모의 손길보다 더 따뜻하게 예령이를 감싸안아준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였다.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겠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령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고있다.

《의사선생님!》

인간사랑의 화원인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애어린 가슴속에도 이렇듯 고운 꿈을 안겨준것 아니랴.

본사기자 조향미

제힘으로 자기의것을 창조하는 일본새

안주돼지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안주돼지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꾸린 첨가제생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자기 힘으로 개발한 이 첨가제는 효능높은 특색기능성첨가제로서 이것을 리용해본 다른 축산단위들에서도 그에 대한 호평이 높다.

공장에서는 첨가제를 생산원가를 낮추면서 어미돼지젖질높이는첨가제, 새끼돼지젖떼기첨가제, 병예방 및 성장촉진첨가제, 비육촉진첨가제, 고기질높이는첨가제, 종자돼지용첨가제 등 생육단계별로 세분화한 여러가지 기능성첨가제들을 개발하였다.

특히 수입원료에 의존하지 않고 서해안지대에 흔한 해염토, 자제로 제배하는 여러가지 고려약재들을 비롯한 우리의 원료를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질좋고 맛좋은 고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이로써 공장에서는 페사률을 낮추고 먹이문제해결에서 크게 혁신하였다.

이 성과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식의 창조본때로 심장의 피를 끓인 이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애국심이 안아온 자랑찬 열매이다.

공장에서 첨가제문제해결에 달라붙은것은 두해전부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에서는 첨가제를 다른데서 가져다 리용하고있었다.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당과 국가앞에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의 경영전략은 어디로 지향되여야 하겠는가?

이 물음앞에 언제나 자신을 세워보군 하는 리용일지배인의 자책은 커만 갔다.

물론 종전의 첨가제를 리용하면 생산성은 높일수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첨가제에 공장의 명줄을 걸고앉아 자리지킴이나 한다면 알곡먹이소비기준을 낮추고 자체원료에 의거한 첨가제를 생산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은 관철하지 못한 공백으로 남게 될것이다.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첨가제문제를 놓고 모대기던 그는 신철호부문당위원장과 마주앉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먹이첨가제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축산기지운영에 필요한 먹이첨가제를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간곡한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첨가제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옳습니다. 다른데서 첨가제를 사다가 가공리용하는것은 실리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군들의 생각은 하나로 합쳐졌다.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풍족한 원료나 좋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것, 어떻게 하나 우리의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자존심과 적극적인 헌신이 중요하다는것이였다.

일군들은 힘들어도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효능높은 첨가제를 만들어낸것을 결심하였다.

이 결심을 김정현연구사와 기술혁신조책임자 리연남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 그리고 모든 종업원들이 적극 지지해나섰다.

첨가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립체전이 벌어졌다.

창조의 문은 자기 힘을 믿을 때 열리는 법이다.

이들은 시작부터 남의것을 넘겨다보거나 본따려고 하지 않았다. 목표는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를 리용하여 원가가 낮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첨가제생산공정을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확립하는것이였다.

생산건물건설과 동시에 첨가제생산의 과학적탐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공장자체의 로력과 기술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여 치렬하게 벌어졌다.

정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도 이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모든 일에서 성과어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었다.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첨가제의 합리적인 조성성분분석과 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는 과정에 6차의 도입시험이 진행되였다. 결과 새 첨가제가 종전에 리용하던 첨가제들보다 원가가 적고 효과적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자기것에 대한 애착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의 일손을 먼저 잡아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실적을 낼수 있는 법이다.

첨가제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내자면 그에 필요한 설비들이 따라서야 했다.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수입이라는 말자체를 몰랐다.

당의 품속에서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 기술자, 기능공들은 실패에도 굴함없이 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고려약초분쇄기, 미분기, 혼합기, 마광기, 파쇄기, 반응기, 고압멸균기, 자동계량 및 포장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설비들을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제작완성해냈다.

이 과정에 평범한 종업원들속에서도 좋은 착상이 많이 나왔다.

공장일군들은 축산의 과학화, 집약화가 고도로 발전하고있는 세계적추세에 따라서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연구사와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어렵다던 킬레트화공정을 확립함으로써 돼지몸안에서의 먹이흡수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지칠줄 모르고 투쟁해온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10월에 생산건물을 완성하고 11월까지 설비조립을 끝내였으며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과 몇명의 로력으로 원료보관과 투입, 제품생산과 검사,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운영하면서 첨가제생산을 정상화하는 자랑이 온 공장에 차넘쳤다.

이 성과를 놓고 지배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자기의것을 창조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것이 남만 못할 때 아픔을 느낄줄 알고 자기 힘으로 창조할줄 아는 애국자가 될 때 실적으로 당을 받든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창조물을 부단히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에 맞으면서도 우리 식의 더욱 우월한 첨가제로 완성하기 위해 련속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그렇다. 이들처럼 제힘으로 훌륭한 자기의것을 창조해내는 자력갱생의 일본새를 지닐 때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앞장에 설수 있을것이다.

감금성

우리의 전략적결단은 천만번 정당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지배주의세력의 횡포한 주권침해행위와 내정간섭책동에 의하여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여러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계속 벌어졌다. 하지만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우려하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죽세의 핵이 정의의 핵에 의하여 보기 좋게 제압당하였기때문이다.

지난해초 우리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공표하자 미국은 불에 덴 황소처럼 날뛰였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들을 대량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온 한해 동안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전쟁설》도 류포시켰다.

수리아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이 나라 공군기지에 무차별적인 미싸일공격을 가하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세지》라고 떠들어대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정권교체》와 《제도전복》을 운운하다 못해 우리 국가와 전체 인민을 《완전파괴》, 《절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인 나발까지 공공연히 불어댔다. 세계는 트럼프의 망동을 두고 경악과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천만군민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 길이 천만번 옳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것을 더욱더 확신하였다. 미국이야말로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 교란자이며 침략자들과는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위협공갈과 제재압박속에서도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응당 거쳐야 할 공정별에 따른 시험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다. 각종 핵운반수단들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하였다.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설계되고 제작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이 용암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으로 거침없이 날아올라 완전성공의 비행운을 새긴것은 우리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가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되였다는것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사변적계기로 되였다.

미국이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들이밀며 발악하였지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세계적인 핵강국, 로케트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다. 우리 민족이 바라고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였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된다.

미국이 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였지만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고있는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나이제리아단체가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한 《평화는 어떻게 지켜지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시사하는바가 크다. 글은 미국의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핵을 포기한 나라들의 비참한 실태를 소개하고 조선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꿈을 꾸지 못하게 되였다, 조선이 악의 제국에 단호히 맞서 세계평화를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이다, 미국의 무모한 핵광증을 옴짝 못하게 다스리고 길들이는 조선의 막강한 핵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의 가장 위력한 보검이다, 평화는 절교구걸한다고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정의의 총대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진리를 국제사회에 깊이 새겨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며 자기를 지키자면 힘이 강해야 한다. 또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이 되여 녹아나게 된다. 이것은 력사에 새겨진 피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승리는 우리의것, 패배는 미국의것이라는 법칙적인 두 전통이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흐른것은 우리의 병진로선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우리 국가의 선택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만일 우리가 일부 나라들처럼 그 누구의 도움에 기대를 걸거나 환상을 가지고 전쟁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지 못하였을것이며 경제강국건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는 이미 새 전쟁이 일어났을것이며 그것은 세계적인 핵전쟁에로 이어졌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 겁쌀이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놓은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여기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제,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내에서도 조선에 대한 군사적선택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라는 비명이 울려나오고있다.

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을 미국은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리 현 도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본태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해나가겠다

총련일군들이 강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새해축전을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안은 총련일군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갈 의지에 넘쳐있다.

조한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교직동)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림으로써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깃든 신년사를 한자한자 새겨 읽느라면 격정의 피가 끓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구쳐오른다고 말하였다.

새해에 전체 동맹원들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며 동맹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갈것이라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보내주신 축전에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숭고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까지 충정다할 일념으로 새해 과업수행에로 전체 동맹원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며 그 앞장에 설 결의를 다짐하였다.

배창렬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은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여주신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박차고 새해에 본부사업에서 총공세를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새해축전에서 총련을 주체조선의 귀중한 재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이라고 그는 결의하였다.

위경호 총련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지부 위원장과 김성국 총련 홋가이도 삿뽀로지부 위원장도 자주의 기치, 병진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이 제일이며 우리의 래일은 더욱 아름답고 눈부시리라는 긍지와 락관으로 가슴 벌떡이며 새해 애국애국사업에 불타는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안보리사회《제재결의》가 또다시 조작된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수리아신문 《티슈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번 《제재결의》를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전면배격하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미국본토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조선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이번 《제재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결의》제력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것이며 조선은 그에 대해 단단히 계산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적대행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수리아의 사나통신, 신문들인 《알 바아스》, 《알 사우라》, 중앙TV방송, 이란의 프레스TV방송, 인디아의 ANI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신문들인 《힌두》,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스테이츠맨》, NDTV방송, 지 뉴스TV방송,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딴마의 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딴마》, TV방송, 페루신문 《나하르네트 뉴스 데스크》, 중국의 신화통신, 중앙TV방송, 중국보도망, 청년망, 홍콩 《명보》,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 로씨야의 따쓰통신, 인터네트신문 벤따. 루, 인터네트잡지 《벨쉬쉬》,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띠 모스크바》, 체스꼬의 체떼까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도이췰란드의 페페아통신, 이딸리아신문 《라 레뿌블리까》, 영국의 BBC방송, 신문 《데일리 메일》, 페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 VTV방송, 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데》,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신문 《뉴욕타임스》,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람구를 위한 국제친선딸기 인터네트홈페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조선외무성 대변인 유엔안보리사회〈제재결의〉를 전면배격》, 《유엔안보리사회〈결의〉는 전쟁행위, 북조선 핵억제력을 강화할것이라고 성명》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적인 문서

로씨야단체들 반공화국《제재결의》를 규탄

로씨야단체들이 반공화국《제재결의》가 또다시 조작된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전로씨야페넌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전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수치스러운 유엔안보리사회《제재결의》 제2397호를 준렬히 규탄한다.

유엔이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되였다는것이 더욱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근로하는 조선인민, 청년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며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그만둘것을 요구한다.

로씨야련방 페넌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의 《제재결의》를 통해 미국은 조선인민과 전세계앞에서 저들의 비겁성을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조선의 핵타격권안에 들어간것으로 하여 미국은 겁에 질려있다.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아메리카제국에 반격을 가할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애써 부정하고있다.

미국은 조선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이에 앞서 조선이 핵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인류문명을 파괴하며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제재결의》를 배격한다.

그 어떤 제재로도 조선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로씨야지역사회조직 《보로지노》는 유엔안보리사회《제재결의》는 인류를 기만하고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적인 문서이다, 미국은 조선의 실체를 인정하고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정세를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성명하였다.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의 신년사

새해 2018년을 맞으며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이 신년사를 하였다.

기네대통령 알파 콘데는 지난해에 기네가 아프리카동맹의장국으로서 나라와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고 반테로, 기후변화, 경제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데 대해 언급하였다. 올해는 독립 60돐이 되는 해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적도기네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곤난, 에네르기위기속에서도 나라의 정치, 사회경제분야에서 고상한 정신이 발휘되였다고 하면서 정부는 여러 정당들과 함께 민족의 복리와 발전,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자주적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있으며 호상 평등과 리익을 위해 모두가 평화롭고 자주적인 세계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이제리아대통령 무함마두 부하리는 지난해 이룩된 나라의 경제발전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에는 농업발전에 힘을 넣어 쌀을 자급자족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 테로와 온갖 범죄를 없애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벨라루씨대통령 알레싼드르 루까쉔꼬는 국가발전의 기초가 고도기술과 과학이라고 하면서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대담하게 조국의 래일을 위한 높은 고지를 점령할것을 호소하였다.

만마대통령 된 죠는 지난 기간 정부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민주주의적인 련방공화국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사회경제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군대와 인민은 물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단결하여 정부가 내세운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적들의 음모책동에 경고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2일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적들의 음모책동에 경고하였다.

이란의 사회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적들이 서로 결탁하여 돈과 무기, 정치 및 정보기관 등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있다고 그는 폭로하였다.

그러나 이란인민의 신념과 용기, 헌신적투쟁에 의해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가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과 이를 비호두둔하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유태인정착촌건설을 계속 확대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성명은 팔레스티나인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강점자들의 제계적인 공격과 범죄행위들은 미행정부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라고 까밝혔다.

성명은 팔레스티나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위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경제 장성

쿠바에서 올해에 경제가 2% 장성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경제 및 재화성이 밝혔다.

또한 잠비아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경제가 3.1% 장성하였다.

특히 농업과 림업, 수산업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밝혔다.

원유 생산

이란의 아자데간에 위치한 원유매장지에서 현재 하루평균 8만bbl의 원유를 생산하고있다. 얼마전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부정부패와의 투쟁 강화

가나대통령 나나 아꾸포-아도가 2일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수표하였다.

그에 따라 부정부패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법정에 고소하는 특별검찰사무소가 설립되게 된다.

대통령은 현시기 부정부패가 나라의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다고 하면서 새 기구의 설립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축산업발전조치

만마에서 최근 축산연구쎈터를 새로 설립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러한 계획은 나라의 전반적인 축산부문을 추켜세우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현재 전국적범위에서 14개의 축산업발전계획들이 추진되고있으며 그 과정에 집짐승전염병방역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한다.

젖제품수출 증가

우루과이에서 지난해 11월에 젖제품수출액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4% 증가하였다.

주요젖제품들은 빠다와 치즈, 우유가루 등이라고 한다. 얼마전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인신매매반대투쟁 강화

모잠비끄정부가 지난해 12월 11일 인신매매반대투쟁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릴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날로 늘어나고있는 인신매매범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브라질에서 커피수확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세금삭감놀음

지난해말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국회 상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세금제도개혁법안에 서명하였다.

일명 감세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세금제도개혁법은 올해 1월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

트럼프는 이 법이 국민들의 일자리조성과 생활개선을 위한것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하고있다. 한마디로 근로대중이 국가로부터 소득세를 일정한 정도 면제받음으로써 혜택을 입는다는것이다.

이것은 궤변이다. 미국전문가들자체가 그렇게 보고있다.

법안이 론의단계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근로대중이 혜택을 입는다는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세금제도개혁법안에 따라 리익을 제일 많이 얻는 사람들은 1%의 고소득자들이라고 밝혔다. 한 경제학자는 만약 새로운 세금제도개혁법이 채택되면 빈부차이를 더욱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득세삭감으로 실지 덕을 보는것은 대독점체들이다.

이번에 트럼프행정부가 내놓은 감세법의 핵심은 법인소득세률을 현재의 35%에서 21%로 삭감한다는것인데 이렇게 되면 독점체들의 재부는 자연히 늘어나게 되여있다. 물론 개인소득세률도 낮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국가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있는 미국에서 정부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 개인들의 간접세를 더욱 늘이는 방법에 매달리기때문이다. 이렇듯 감세법이나 내놓는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극소수 부유계층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미국의 통치배들은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업문제해결과 세금삭감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마치도 《만민을 위한 복지사회》를 건설할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들의 공약중 어느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다. 억만장자들을 위하여 군사비를 늘이고 군비경쟁을 강화하며 전쟁준비를 다그침으로써 도리여 《가난한 사람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실업을 전례없이 증대시켰을뿐이다.

소득세삭감은 가뜩이나 막대한 빚더미우에 앉아있는 미국경제를 더욱더 파멸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하는 촉매제로 되고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인 수자를 기록하고있다. 해마다 지출되는 막대한 군사비는 예산, 무역의 쌍둥이적자로 힘겨워하는 미국의 심각한 재정상태를 막다른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미국에서 재정절벽이라는 낱말이 떠돌고 경제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세상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된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와 발족한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만료되였을 때에도 일어난 이 사태는 트럼프의 감세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세금징수에 관한 초당파적인 공동위원회가 추산한데 의하면 이번 세금제도개혁법으로 앞으로 10년간 련방정부의 적자가 1조 4 600억US$ 더 늘어나게 된다.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개인소득세삭감은 중지하고 대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소득세삭감만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트럼프와 공화당패거리들이 만들어낸 세금제도개혁법의 반인민성이 있다.

하다면 부시행정부때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미국경제전반을 또다시 파국상태에로 몰아넣을수 있는 이 법을 한사코 강행추진시켰는가 하는것이다.

그 리면에는 날로 악화되는 정치적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집권유지에 필요한 지반을 마련하려는 정치적타산이 깔려있다. 력대 미국대통령들치고 현 당국자처럼 집권의 막을 올린 초기부터 국내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개몰리듯 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 그로 하여 트럼프와 공화당은 희악의 정치적위기에 빠져들었다.

출로는 독점재벌들의 환심을 사고 민심을 돌려세우는것이였다. 그 수단이 바로 세금삭감이다.

미국에서는 태여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것이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세금이 사람들을 피롭히고있다. 수십가지에 달하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은 이중삼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바로 트럼프는 세금삭감이라는 미끼로 그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한마디로 세금을 정치적흥정물로 하여 재벌들의 환심을 사고 민심을 돌려취는데 나선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트럼프행정부가 내놓은 감세법으로 인한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세금을 늘이고 인민들에게 그 부담을 들씌워놓을것은 뻔하다. 결국 녹아나는것은 인민들뿐이다.

99%를 희생시켜 1%를 살리는 세금제도개혁법이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와 계급적모순을 극도로 격화시켜 미국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몰아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박 송 영

여러 나라들에서 자연재해와 사고

◎이란의 테헤란주에서 얼마전 리히터척도로 5.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테헤란시로부터 동북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지진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전기공급이 중단되였으며 통신망들이 마비되였다.

또한 스리랑카에서 최근 가물로 피해를 입고있다.

1일 이 나라 재해방지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현재 바두니야, 아누라다푸라, 만나르를 비롯한 5개 지역들에서 29만 3 700여명의 주민이 극심한 가물로 고통을 겪고있다 한다.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있다.

한편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열대성폭풍으로 큰물과 산사태가 일어나 지난해 12월 23일현재 200명이 목숨을 잃고 70여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5만명이상의 주민이 소개되였다.

또한 많은 살림집과 도로, 다리가 파괴되였으며 비행기운행이 휘소되였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월남의 각지에서도 지난해에 태풍과 폭풍, 큰물, 흙사태로 38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였다. 그리고 26억US$어치의 경제적손실이 초래되였다. 최근 이 나라 농업 및 농촌개발성이 밝혔다.

또한 칠레의 남부지역에서 지난해 12월 16일에 일어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7일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이날현재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5명, 12명으로 늘어나고 행방불명자수는 18명에 달하였다.

◎스리랑카의 라트나푸라에서 지난해 12월 23일 탈리먼 뻐스가 길옆의 도랑에 빠져 2명이 목숨을 잃고 44명이 부상당하였다.

같은 날 인디아의 라저스탄주에서 려객뻐스가 방향을 잃고 다리밑으로 굴러떨어져 27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앞서 22일 중국의 흑룡강성 할빈시에서 화물자동차가 도로수리를 하던 사람들을 들이받아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우간다의 중서부지역에서는 2대의 자동차가 정면충돌하여 6명의 사망자가 났다.

한편 에스빠냐의 마드리드교외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려객렬차가 레루우에 있는 완충기를 들이받아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같은 날 오스트리아의 원부근에서는 2대의 렬차가 충돌사고를 일으켜 12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에 앞서 21일 일본 이와데현에서 살림집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

ㄱ-810035(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